

고품격 경제정책 전문매거진

통권 제32호 | 2012. 3

경영저널

하나되는 대구·경북, 경제통합에 기여하는 정론



COVER STORY / 임광원 울진군수

Wonderful Uijin / “은천옥 즐기고 건강찾으세요”

포커스 리딩 / 롯데·이랜드, 지역 유통시장 입김 강화

시장경제를 말한다 / 자본시장 감시의 제역할을 기대하면서

장바구니 물가 / 2월 기록적 한파 농산물가격 들쭉

Life Style / 지역 유통시장 ‘착한소비’ 열풍

지자체는지금 / 경북도, 녹색길 5곳 새로 조성

Photo Essay **울진 왕피천**

수정처럼 영롱한 맑디맑은 그 물결
60.95km 굽이굽이 흘러 맞닿은 동해 앞바다.
세찬 물줄기 타고 힘차게 오르는 저 연어떼를 뒤로 하고
울진의 생명줄 왕피천에 봄, 봄, 봄 '새봄' 이 찾아왔구나!



사진제공/울진군청

경영저널 www.경영저널.com 통권 제32호

발행인·대표이사 이진구 | 편집인 서기대 | 등록번호 대구라07691 | 창간 2007년 11월 5일 | 편집위원 윤일형, 정성민, 홍순대 | 전문기자 장승욱, 민경량, 이포상

편집 이한나 | 사진 김기환 | 등록일자 2011년 3월 22일 |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8길 22 TEL 053)766-1368 | FAX 053)766-1356

인쇄 삼영정밀인쇄사 | 가격 5,000원



C

Contents

- 02 _ Photo essay / 울진 왕피천
- 04 _ News wide / 지방공기업 사회적 책임 강화
- 06 _ Economic trend / 대구·경북 주택매매가 상승세 지속
- 08 _ Cover story / 임광원 울진군수
- 12 _ Wonderful Jjin / “은천옥 즐기고 건강 찾으세요”
- 14 _ Focus reading / 롯데·이랜드, 지역 유통시장 입김 강화
- 18 _ 시장경제를 말한다 / 자본시장 감시의 제역할을 기대하면서
- 20 _ 장바구니 물가 / 2월 기록적 한파 농산물가격 들쭉
- 21 _ 칭찬합니다 / 문경시 문화예술과 엄원식 학예사
- 22 _ 주목 이 기업 / 대구·경북 대표 주류도매업체 (주)산화주류
- 24 _ 축제의 고장 Uijin / 대계·송이축제 전국적 명성
- 26 _ Uijin특산품 / 생토미, 고평미역, 키토산한우 등 청정 농축수산물 인기
- 27 _ Travel sketch / 울진 금강송군락지
- 28 _ 재테크 / 작년 일반주식 변액보험펀드 수익률 큰 폭 약화
- 30 _ Life style / 지역 유통시장 ‘착한소비’ 열풍
- 32 _ 금융&투자 / 화폐의 시간가치
- 33 _ 지자체는 지금 / 경북도, 녹색길 5곳 새로 조성
- 34 _ 통계로 보는 대구·경북 농어업 / 경북 농식품 수출 연간 2억달러 시대 개막

〈정기구독 안내〉

정기구독료 : 연 48,000원
신청 방법 : 전화, 053) 766-1368
이메일, kepiglobal@kepi.or.kr
성명, 주소, 연락처를 기재해 주세요.
(기관일 경우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성명 기재)
입금 계좌 : 대구은행 225-12-003611
국민은행 698301-04-034744 (주)경영저널

〈독자 투고 받습니다〉

경영저널은 독자 투고를 받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분야에 대한 칼럼 및 평론을 200자 원고지 5-7매 또는 A4지 1장(글자10포인트) 분량으로 보내주시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해 드립니다. 독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8길 22
706-842 경영저널 편집국
TEL. 053) 766-1368
FAX. 053) 766-1356
독자기고팀(kepiglobal@kepi.or.kr)



지방공기업 사회적 책임 강화

앞으로 지방공기업 경영 평가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경영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지표를 보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2013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편람 개선안을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지표는 매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활용되며, 평가 결과는 성과급 지급 기준, 부실·부진공기업 선정 등에 활용된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행안부는 올해부터 당기순이익, 사업수지비율 등 경영성과 지표 비중을 기존 55점에서 58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경영성과 평가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도시철도·서울농수산물공사 등 기타공사의 부채비율 최고 목표기준 또한 기존 400%에서 200%로 축소하는 등 부채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아울러 부채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공기업에 대해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및 리스크 TF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간제 근로자 상여금 지급, 외주용역 근로자 직접 고용과 같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에 따라 발생하는 증액된 인건비의 경우 사업비 절감 및 인건비 인상 관련 지표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고졸자를 비롯한 청년 미취업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에

대한 고용능력을 평가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도 확대하기로 했다.

행안부 노병찬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지방공기업엔 현재 6만5천명이 종사하고 연간 44조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향후 지방공기업이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경제운영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영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바이오·의약품시장 부가가치 창출 확대

정부가 오는 2016년까지 바이오산업과 의약품시장 창출규모를 각각 23조원, 26조원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생명공학융합정책심의회를 열고, 제2차 2단계(2012~2016년)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16년까지 바이오분야 논문 세계 7위, 특허기술 경쟁력 세계 13위까지 끌어올리기로 하고, 바이오산업과 의약품시장 창출규모 역시 각각 23조원, 26조원까지 확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수요 맞춤형 R&D(연구개발) 및 중개 연구 확대, 부처간 연계협력 강화 등 바이오 핵심분야 산업화 촉진을 위한 4대 추진전략과 14개 실천과제를 보완해 발표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제1단계 기본계획(2007~2011년)에서 당초



계획대비 106%의 투자실적을 조기 달성하는 동시에 우수 논문 게재, 특허 성과 창출 등 적잖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투자는 2006년 8천270억원에서 2010년엔 1조5천175억원까지 늘어났으며, 이 기간 SCIE 논문수와 미국 특허등록수도 1.6배, 1.3배씩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측은 이런 성장 추세에 힘입어 향후 5년간 관련분야에서 석·박사 인력 7만3천222명을 배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학교폭력 근절대책 발표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 의지를 담은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최근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주요 학교폭력 관계 장관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7대 직·간접 실천대책을 담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학교폭력을 은폐하는 교장·교사를 처벌하고 학생 생활지도 강화를 위한 복수담임제를 도입하겠다는 게 주된 골자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학교장에게는 학교폭력이 일어나 피해학생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가해학생에 대해 즉시 출석을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아울러 피해학생이 원할 경우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항도 대책에 담았다.

반면 학교폭력을 은폐하려다 적발된 학교장과 교원은 성적 조작 등과 같은 중대 비위 수준으로 징계를 받게 된다.

특히 학급을 교사 2명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복수담임제를 올 해 중학교에, 내년엔 고등학교에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또한 담임교사에게 매학기 1차례 이상 학생과 1대 1 면담을 하고,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지경부, 중장기 R&D사업 지원 강화

지식경제부는 올해부터 최장 5년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에 1천43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총 99개 과제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은 지경부의 대표적 중장기 R&D(연구개발)사업이다.

지원기간은 과제별 특성에 따라 3년부터 5년까지이며, 일반형 및 병렬형 과제는 오는 3월29일까지, 통합형 과제는 오는 4월18일까지 사업자를 신청받는다.

이 사업은 크게 신산업 부문과 정보통신산업 부문으로 나뉘어 지원된다. 이 중 로봇분야는 인식센서융합을 기반으로 위치정보 인식과 관련된 기술을, 바이오분야는 환자복지형 호발성 질환 치료 가이드라인 구축을 위한 질병특이 유전자 진단기술 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된다.

또 SW분야는 차세대 메모리 기반의 스마트 디바이스용 소프트웨어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디지털콘텐츠 분야는 가상현실을 적용한 3D 영상편집 도구 개발을 과제로 삼고 있다. 지경부 측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5~6월 중에 사업자를 결정하고, 상반기 내에 협약 체결을 완료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구제역 백신 접종 않은 축산농에 과태료 부과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1차 검사에서 항체양성율이 미흡(돼지의 경우 60% 미만)한 것으로 확인된 농장의 경우 관할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항체양성율 미흡으로 인해 1차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장(종돈장 및 정액채취센터는 제외)이 추가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확인검사 결과에서 기준 미달에 해당할 경우에 대해선 2차 과태료 처분을 검역검사본부의 현장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조사결과가 나온 후 구제역 항체형성 수준이 조사결과보다 낮거나 접종소홀로 인해 항체양성율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보류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대한양돈협회가 선의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과태료 유예를 건의하는 등 검역검사본부에서 예방접종 돼지의 항체형성 수준에 대한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장승욱 전문기자

대구·경북 주택매매가 상승세 지속

교통망 확충 경산지역 오름세 두드러져
대구·경북은 동구·달성군 강세

전국의 주택매매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대구·경북도 예외는 아니다. 대구의 경우 동구와 달성군이 전세물량 부족현상이 가중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경북 역시 도시철도2호선 개통을 앞두고 대구와 접근성이 나아지는 경산을 중심으로 가격 강세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주택매매가 오름세 지속

주택 매매가격 강세현상은 올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한층 확인해진다. KB국민은행이 최근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광역시와 지방에서 강세흐름을 보이면서 전달보다 0.2%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6개월(지난해 7~12월)간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월별로 7월 0.4%, 8월 0.5%, 9월 0.5%, 10월 0.4%, 11월 0.4%, 12월 0.2%씩 각각 올랐다.

조사 대상지역인 전국 146개 시·군·구 가운데 가격이 상승한 지역은 72곳, 보합권은 22곳, 하락지역은 52곳으로 집계됐다.

서울 등 수도권은 0.1% 하락했지만 6대 광역시와 지방은 0.3%, 0.5%씩 상승해 대조를 보였다.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은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으며, 지역별로는 강북(-0.1%), 마포구(-0.2%), 강북구(-0.2%), 강남(-0.1%), 관악구(0.2%), 양천구(-0.3%), 강남구(-0.3%) 등지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광역시 중에선 부산, 광주가 상승한 반면 인천과 대전은 하락세를 기록했다.

대구·경북도 매매가 강세

대구와 경북도 이와 비슷한 흐름을 보여, 주택매매가격 강세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전달대비 지난 1월 대구와 경북의 주택

매매가격은 각각 0.6%, 0.8%씩 상승세를 기록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지역별로 대구는 동구와 달성군이 많이 올랐다.

동구는 전세물량 부족 영향으로 매매전환 수요가 몰리면서 0.9% 상승했고, 중·소형을 중심으로 강세현상을 보인 달성군도 0.8% 상승했다.

경북은 경산지역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오는 9월 완공 예정인 도시철도2호선 개발호재와 삼성현로 개통 등 교통망 확충에 따라 대구와의 접근성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면서 1.8% 상승세를 보였다. 산업도시 구미도 0.8% 올랐다.

전세기도 동반 상승

주택 전세기도 이와 엇비슷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1월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수도권은 보합세를 보인 반면 6대 광역시와 지방에서는 오름폭이 커, 전국적으로는 0.2% 상승했다. 같은 기간 대구와 경북은 0.9%, 1%씩 올랐다. 대구의 경우 성서산업단지 근로자 수요 증가에 힘입어 소형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인 달성군(1.3%)과 물량부족현상이 가중된 달서구(1.1%)에서 오름폭이 컸다.

경북은 경산과 구미지역에서 많이 올랐는데 직장인 수요 증가와 외부투자요소가 맞물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국적으로는 6대 광역도시와 지방에서 각각 0.4%, 0.6%씩 올랐고, 서울 등 수도권은 전달과 변함없었다.



아파트매매가도 상승곡선

아파트 매매가격도 엇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격(1월30일기준)은 전달보다 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연말보다 0.6% 오른 것이다. 전국의 아파트매매가는 1% 상승해 주간단위로 6주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서울은 전달과 가격이 같았고, 광역시 중에서는 대구 외에도 부산(0.1%)과 광주(0.3%), 울산(0.4%) 등지에서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아파트 전세가격의 경우 전국적으로 0.1% 오른 가운데 대구지역에서는 물량부족현상이 가중되고 있는 달성군이 0.5%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경북 표준단독주택공시가 4%대 상승

대구와 경북의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4.08%, 4.28%씩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1월1일기준으로 전국의 표준단독주택 19만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인 5.38%에 비해선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표준단독주택수는 대구가 6천993호, 경북은 2만3천88호를 기록해 전국의 15.9%를 차지했다.

가격대별로는 대구의 경우 5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가 3천355호로 가장 많았으며, 1억원초과 2억원 이하(1천887호), 2천만원초과 5천만원 이하(1천75호) 등이 뒤를 이었다.

경북은 3천만원초과 5천만원 이하(9천391호), 1천만원 이하(5천490호), 1천만원초과 2천만원이하(3천860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의 표준단독주택공시가 상승률은 울산이 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서울(6.55%), 인천(6.13%), 경남(6.07%) 등이 그 뒤를 따랐다. 반면 광주(0.41%)와 제주도(1.54%), 전남(3.01%) 등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전국적으로는 251개 시·군·구지역이 모두 상승했으며, 90곳이 전국 평균을 상회했고, 161곳은 하회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각종 과세 및 개별주택가격 산정 기준 등 행정목적으로 활용된다.

이포상 전문기자



임 광 원 울진군수

출생 1950년 경북 울진
학력 후포고등학교 졸업
 대구교육대학교 졸업
 국제대학교 경제학 학사
 경북대학교 행정학 석사
경력 제25회 행정고등고시
 영덕군 부군수
 경북도 기획관
 경북도 경제통상실장
 울진자치발전연구소장
상훈 근정 포장
 홍조근정 훈장
저서 연어! 왕피천으로 돌아오다
 오늘도 등대는 바다를 지킨다

경북 동북부지역에 위치한 울진군이 원자력 기반의 연구개발(R&D)사업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는 등 한동해시대를 맞아 해양 연구중심 축으로 조명받고 있다. 지난 2010년 7월 출범한 민선 5기 임광원(62) 울진군수는 이러한 성과를 거둔 원동력으로 소통과 화합을 토대로 한 6만여 군민들의 단합된 저력과 화합에서 찾고 있다. 울진이 고향인 임 군수는 임진년 올 한해 역점 사업으로 살기좋은 복지고장 울진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봄기운이 완연했던 지난 2월24일 울진군청에서 가진 본보와의 대담에서 임 군수는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 살기좋은 울진을 만들기 위해 600여 직원들과 함께 맡은바 책임과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면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신성장 동력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동시에 스포츠 마케팅 및 관광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 살기 좋은 ‘복지울진’ 조성에 매진할 터 ”

일문일답

Q 울진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선?

A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 직원이 힘을 합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울진 1, 2호기 공사 등 대형 국책 사업을 기반으로 고용창출을 확대하고 공공근로사업,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등을 통해 서민 일자리 확충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지역 개발 프로젝트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단지과 소수력 발전소를 설치하고 원남 골프장과 오산 종합리조트, 월드 하우스마을 및 구산 오토 캠핑장 조성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 살기좋은 울진군을 만드는데 밑거름으로 활용할 작정입니다. 평해농공단지, 죽변 해양바이오 농공단지 등 산업단지를 조기에 조성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촉매제로 삼겠습니다.

Q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책은?

A 세계적 규모의 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완성해 울진군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원진 온배수와 해양바이오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해수자원 활용 연구센터를 건립하기로 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국립해양과학교육관 지역 유치에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한국해양연구원 동해분원과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을 활용해 해양에너지 개발과 자원화사업을 강화하는데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환동해 해양과학 연구중심축으로 울진군의 희망찬 미래를 반드시 열어젖히겠습니다.

특히 평해읍 울송리에 위치한 평해공업고등학교가 최근 원자력 마이스터고에 선정됨으로써 원전관련 인력양성은 물론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R&D)시설을 유치하는데 크나큰 힘을 보탬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도 적잖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Q 생태 문화관광 인프라구축 사업에 대해선?

A 왕피천 주변지역관광벨트 조성사업의 하나로 왕피천과 남대천 보행교를 가설하고, 염전 체험장 조성사업을 연차적으로 일단락 지을 방침입니다.

전국 최고의 수질을 자랑하는 백암·덕구온천지구 활성화를 위한 묘안 마련을 위해서도 해당 지역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덕구온천지역에 대해선 웰빙 트렌드 확산 추세에 맞춰 보양온천으로 개발하는 동시에 피톤치드 사우나, 힐링센터를 갖춘 덕구랜드로 개발해 관광객들에게 선보일 방침입니다.

온정지구 역시 백암온천 자연치유 단지를 비롯한 다목적 운동장, 레저·휴양시설 등을 갖추으로써 스포츠 동호인 유치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울진군의 자랑거리인 금강송 숲길과 연계한 십이령 옛길도 조속히 복원하겠습니다. 울진을 우리나라 대표 생태 문화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겠다는 얘기입니다.

Q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지사업에 대해선?

A 종합복지관 교육 강좌와 읍·면단위의 여성취미교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동시에 울진이 낳은 추상화 대가인 유영국 화백의 미술관을 건립하는 등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충해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 제공할 방침입니다.

총 7개 읍·면지역에 소규모 도서관을 운영하고 무료 영화 상영은 물론 기획공연도 수시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복지 인프라 확충사업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청소년 종합문화센터를 비롯한 장애인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을 조기 건립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울진어린이집을 신축하고 울진군 노인요양원과 군립어린이집 기능도 대폭 보강해 운영할 생각입니다. 사회 약자층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위해 공동 취사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보육시설종사자를 위한 처우개선에도 힘을 모을 작정입니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취업 인턴제를 실시하고, 다문화가족 친정 방문과 한부모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사업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등 저소득층 일자리사업을 조기 시행하고 출산장려 등 현장 밀착형 친서민 복지사업도 차질 없이 완성하겠습니다.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저소득 빈곤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의료 등 건강증진사업도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Q 살기좋은 농어촌 만들기 프로젝트가 있다면?

A 울진군은 부농(富農)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강소농 160호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친환경 미생물 증식시설을 설치하고 해풍 토마토 유기재배 등 신기술 보급과 고소득 특화작목 육성으로 살맛나는 부자 농촌을 만드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벼 특수농법단지 관리 △틈새시장 경제작물 생산기반 조성 △지역대표 작목 육성 등 농업기반 조성사업도 한 치 흐트러짐없이 추진해 살기좋은 농촌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산림자원 개발에도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531억원을 투입하는 울진 금강송 생태휴양 단지와 함께 금강소나무 연구센터를 건립하고 울진숲길 18로 및 낙동정맥 트레일을 조성하는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림 생태관광자원으로 반드시 육성하겠습니다. 울진군은 이와 함께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소광리 금강송군락지를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살기좋은 어촌 만들기사업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어항으로 개발 예정인 죽변항을 미항으로 조성하기 위해 죽변항 기능활성화 시범사업을 조만간 본격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후포항은 국비 660억원을 투입해 총 300척 규모의 요트계류장을 갖춘 마리나 시설로 조성하고, 후포여객선터미널과 울진대게 홍보전시관 등을 구축해 동해안 해양관광 거점지역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관광형 바다목장화사업과 바다낚시공원 조성 사업에 주력하는 동시에 구산 및 망양정 해수욕장 등 지역 내 주요 해수욕장에 대해 시설확충과 보강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피서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Q 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울진군은 현재 스포츠마케팅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

A 고 있습니다. 이런 자신감의 밑바탕엔 군부 최초로 지난해 제49회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이 큰 힘이 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그래서 기(既) 조성된 체육시설과 더불어 복합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군민들의 생활체육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산악자전거(MTB)코스를 개발하고 요트 및 윈드서핑 교실을 상설 운영하는 한편 제5회 코리아컵 국제요트 대회 및 춘·추계 한국고교축구 연맹전을 개최하는 등 전국 단위의 스포츠대회 유치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마니아층의 지속적 유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Q 장학사업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면서요?

A 그렇습니다. 인재 육성사업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울진빌리지스쿨 운영을 내실화 해 나가는 한편,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자율형 공립고와 마이스티고 육성 및 학력향상 지원으로 명문고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교육경비 경감은 물론 학생들이 안정된 공간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서울 등 대도시에 울진학숙 건립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들어 기존의 보육아동과 초등학교생뿐 아니라 중학생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기반으로 지역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울진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발굴 및 육성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지역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Q 친환경 농업 육성방안에 대해선?

A 울진군은 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명실상부한 친환경농업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면적을 살펴보면 울진군은 총경지면적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11%)을 크게 웃도는 것입니다. 특히 유기농업실천면적은 전국 평균의 세 배를 상회하는 16%에 달하는 것은



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개선해야 할 과제도 적지않은 상황입니다. 친환경농업의 80%이상을 벼가 차지하고 있는 등 특정 작물에 편중돼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재배작물 다각화 등 친환경농업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 숙제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울진의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밭작물육성도 시급한 과제로 보입니다. 감자, 양파, 아콘, 산채 등 5대 작물을 지역 대표 밭 작목으로 육성해 농가소득 향상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Q 광역교통망 확충사업에 대해선?

A 남북7축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동해중부선 철도 등 철도망 구축사업에 힘을 쏟고 있는 등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단절된 해안도로를 연결하고, 내륙산악도로를 개설하는 등 4개 읍면 10개소의 도시계획도로를 새롭게 정비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국도 88호선 시설개량사업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총길이 19km에 달하는 서면-울진 구간 역시 오는 2017년 개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Q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힘쓰고 있다면서요?

A 국비 등 총 사업비 100억원이 투입되는 근남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가지 주차공간 확충사업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평해읍 일원을 대상으로 소도읍가꾸기사업도 조만간 일단락을 계획합니다. 군은 이에 그치지 않고 연안해역 수질 환경개선사업과 안정적인 수도물 공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울진지방상수도를 확장하고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 및 개량,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추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등 관련 기반시설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생태관광 보고(寶庫)인 울진의 위상에 걸맞게 정주환경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Q 앞으로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A 유로존 신용경색 등 글로벌 경기 위축 여파로 올 한해 대내외 경제는 험난한 앞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울진군 역시 이런 풍랑에서 예외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돼 서민안정과 경제활력증진에 가일층 노력하고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6만여 군민들의 지혜와 저력을 결집해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 복지 울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창의성과 혁신적 사고를 기반으로 주민들을 섬기고, 아울러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나감으로써 살기 좋은 복지고장 울진을 만드는데 헌신하는 참된 일꾼이 되겠습니다.

대답=서기대 국장
정리=장승욱 전문기자





“온천욕 즐기고 건강찾으세요”

울진 곳곳에는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명소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풍부한 관광 자원을 갖춘 때문이다. 대표적 관광자원으로는 ‘온천’도 놓칠 수 없다. 이 중 백암·덕구온천은 온천 마니아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내 대표 천연 온천수로 인정받고 있다. <편집자 주>

1천년 역사 간직한 백암온천

울진은 자타가 인정하는 온천의 고장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온천 두 곳이 있어서다.

평해읍에서 12km 가량 떨어진 온정면 온정리와 소태리 일대에 위치한 백암온천이 그 중 하나다. 지난 1997년 관광특구로 지정된 백암온천은 1천년 역사가 깃든 천연 온천수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이 온천은 신라시대 때 사슴을 쫓던 사냥군이 발 견했다는 전설이 이어져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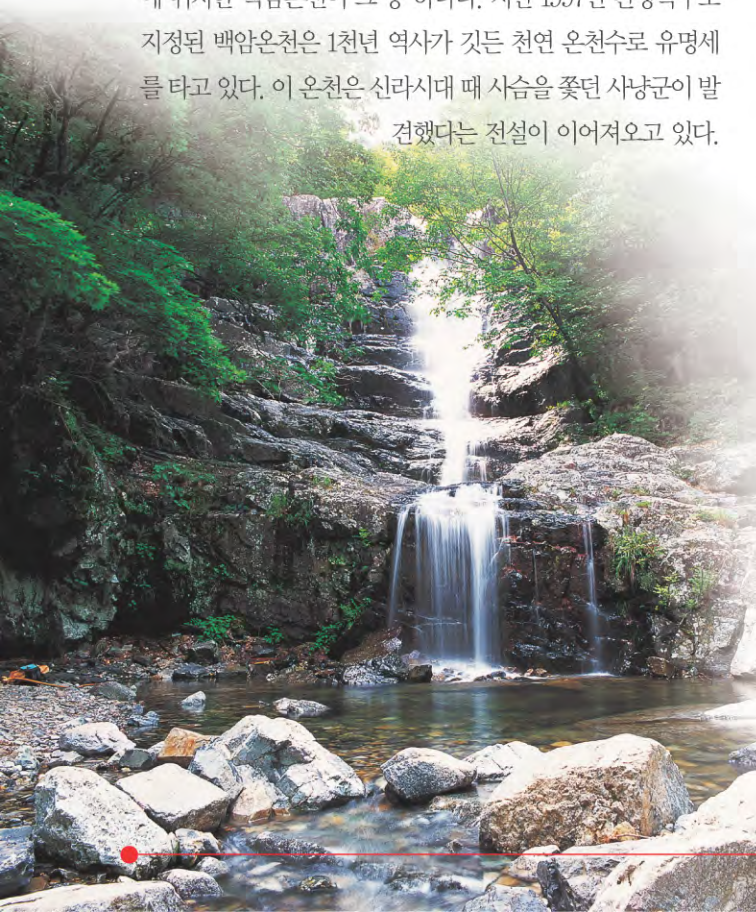
고려 명종 때 목조 욕탕으로, 조선시대에는 석조 욕탕으로 면모를 갖췄다고 한다. 울진군에 따르면 백암온천의 수온은 온천욕을 즐기기에 최적의 온도인 48℃를 유지하고, 몸에 유익한 나트륨, 불소, 칼슘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다.

이 때문에 만성피부염, 자궁내막염, 부인병, 중풍, 동맥경화 등 각종 질병에 탁월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한다. 인근의 관광지로는 관동팔경 가운데 가장 남쪽에 위치한 월송정(越松亭)을 비롯해 해발 1천 4m 높이의 백암산, 청정 동해 대표 피서지인 후포·구산·기성망양해수욕장 등이 유명하다.

숙박시설로는 성류파크관광호텔(054-787-3711)과 백암온천호텔피닉스(054-787-3044) 등 호텔이 있고, 백암한화콘도(054-787-7001) 등 콘도와 함께 숲속에산장(054-787-7222), 자연민박(054-787-7090) 등 모텔과 민박업소가 부근에 빼곡히 들어서 있다.

울진 부근 바다에서 어획된 해산물을 비롯한 현지 특산물과 토속음식을 맛 볼 수 있는 성류민속식당, 별남대게횃집, 다혜원식당 등 맛집도 즐비하다.

백암온천을 찾기 위해선 승용차의 경우 포항-울진간 국도 포항기점 91km 지점에서 평해에서 서쪽으로 이어지는 88번 지방도로를 이용하면 되고, 동서울발(發) 온정도착 고속버스도 하루 6차례 가량 운행되고 있다. 울진-온정간, 평해-온정간 시대버스도 각각 50분, 15분 간격으로 다니고 있다.





천연 용출수 덕구온천

덕구온천도 온천마니아 사이에서 이름높은 천연 자연용출수로 정평이 나 있다. 북면 덕구리에 위치한 덕구온천은 연중 43℃를 유지하는 약알칼리성 온천수로 기계적 동력장치없이도 5m 가량을 치솟아 올라온다고 한다.

울진군 관계자는 “온천수를 데우지 않고 산에서 분출하는 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곳 물이 얼마나 맑은지 2~3개월 가량 지나도 침전물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깨끗하다”고 치켜세웠다.

지난 91년 2층 건물로 문을 연 덕구온천은 현재 객실을 포함해 4층짜리 호텔과 스파월드, 야외 노천온천, 가족온천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해 기포욕 등을 즐길 수 있는 스파월드도 보강해 이용객들로부터 만족도가 높다.

이 온천수는 중탄산나트륨 등이 풍부해 근육통, 타박상, 피부 질환, 잠수병 치료에 뛰어난 효능을 거둘 수 있다. 여성들의 피부미용에도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덕구온천은 지금으로부터 대략 650여년 전인 고려말 멧돼지 사냥꾼이 발견했다는 전설을 간직하고 있다.

온천 주변엔 눈길을 끄는 볼거리도 참으로 많다.

불영사계곡과 함께 울진의 양대 계곡으로 불리는 덕구계곡에는 축소 모형으로 제작된 금문교, 노르망디교, 장제이교, 히버교 등 세계의 유명 교량 12개가 조성돼 있어 관광객들의 발길이 연중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인근에는 해금강을 방불케할 정도로 아름다운 바위섬을 자랑하는 나곡해수욕장과 금강송 군락지인 구수곡자연휴양림, 날아오르는 매의 형상을 닮아 이름 붙여진 매봉산 등 빼어난 관광자원도 두루 갖추고 있다.

숙박시설로는 호텔덕구온천(054-780-0677), 벽산덕구온천콘도(054-783-0811)와 함께 여관, 민박촌 등이 들어서 있다.

매봉산 산재로 만든 비빔밥과 함께 자연산 송이, 토종닭 백숙,

칼국수 전문식당이 영업 중에 있고, 인근의 죽변항에서 잡히는 울진대게와 활어회를 맛 볼 수 있는 횡집도 있다.

주요 교통망으로는 동서울-덕

구온천간 고속버스 편

이 하루 두 번, 부구-

덕구온천간 시내

버스도 정시(定

時)에 운행되고

있다.

민경량 전문기자



롯데·이랜드, 지역 유통시장 입김 강화

영업점 지속적 확장...시장지배력 확대



THE E·LAND
GROUP



롯데

'소비도시' 대구 유통시장을 두고 국내 대표 공룡 유통업체인 롯데와 이랜드간 힘겨루기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두 업체는 최근들어 지역 진출을 확대하면서 유통시장에서 입김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진출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 롯데그룹이 신규점 출점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반면 이랜드그룹은 향토 유통업체 인수합병(M&A)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랜드, 지역 유통시장 진출 활발

지역 유통시장 진출을 위한 이랜드그룹의 최근 행보는 매우 활발하다. 선호하는 방식은 단연 인수합병을 통해서다. 포문을 연 것은 지금으로부터 대략 2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38년 전통의 향토 대표 백화점인 동아백화점을 지난 2010년 인수하면서 첫발을 내딛었다.

화성산업은 지난 2010년 3월 자사의 유통사업부문인 동아백화점을 이랜드그룹의 유통계열사인 이랜드리테일에 전격 매각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매각 대상은 동아백화점 본점, 쇼핑점, 수성점, 강북점, 구미점 등 백화점 5곳과 동아마트 수성점, 구미점 등 대형마트 2곳, 유통센터 1곳, 동아스포츠센터 등 화성산업의 유통산업 전 부문이 포함됐으며, 양사가 당시 발표한 매각대금은 2천680억원 규모다.

동아백화점을 인수한 이랜드리테일은 그해 9월 대구시 북구 관음동에 위치한 동아백화점 강북점을 리노베이션을 거쳐 아울렛 매장으로 개편했다. 상해도 동아아울렛 강북점으로 바꿨다. 이랜드리테일 측은 이어 쇼핑점과 동아마트에 대해서도 리뉴얼 공사를 통해 매장을 새롭게 개편하는 등 지역 유통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주목받고 있다. 이랜드그룹의 지역 유통시장 공략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있다. 올 1월에도 한 차례 있었는데, 그간 경영압박에 시달려온 향토 아울렛 업체인 올브랜과 장기

임대 형식의 수탁경영을 체결하면서 지역 아울렛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양 측은 올브랜의 영업권을 이랜드가 넘겨받아 10년 장기 임대형태로 매장을 운영하고, 매출대비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을 끝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구 북구 산격동 종합유통시장에 위치한 올브랜은 지난 2005년 8월 문을 연 이후 매년 100억원씩 매출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3년만에 대구 아울렛업계 2위로 성장한 대구 대표 향토 아울렛업체로 평가된다.

지난 2010년엔 대구 달서구 모다아울렛 부근에 올브랜 성서점을 오픈하는 등 공격적인 경영에 나섰지만 역의 유통업체들의 잇따른 진출에 고전하면서 결국 이번에 '수탁경영'이란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시장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올브랜이 이랜드 측에 경영권을 넘겨주면서 지역 아울렛시장에선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향토 아울렛업체의 명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한 까닭에서다.

지역 아울렛업계 부동의 1위 업체였던 모다아울렛이 지난 2010년 수도권에 본사를 둔 역의 전문투자업체 KIG홀딩스에 경영권을 넘긴 이후 매출 2위 업체인 올브랜마저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군소 향토업체만 구(區)단위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롯데, 신규점 출점통해 지역 유통시장 공략 가속화

이랜드그룹이 이 처럼 M&A를 토대로 지역 유통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는 반면 롯데그룹은 막강한 자금력을 기반으로 신규점 출점을 선호하고 있는 분위기다. 지역 유통시장 진출은 유통계열사인 롯데쇼핑이 선봉에 서있다.

롯데쇼핑은 지난 2003년 롯데백화점 대구점을 성공적으로 오픈하면서 지역 유통시장에 안착했다는 평을 얻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단연 지역 백화점시장에서 절대 강자로 통한다. 대구에만 현재 대구점과 상인점 등 영업점 2곳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대백화점, 대구백화점과 함께 지역 백화점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무엇보다 매출 신장세에 눈길이 쏠린다.

롯데백화점 대구점은 지난해 기준으로 대구지역의 백화점 영업점 가운데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지난 2010년에도 이런 흐름은 이어졌다.

동북지방통계청과 대구백화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준으로 대구지역의 백화점 매출은 1조2천737억2천60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롯데백화점은 대구점과 상인점 등 영업점 2곳

으로 총 6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된다.

롯데그룹의 지역 유통시장 진출은 백화점시장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다. 주력업종인 아울렛과 대형마트시장에서도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2010년 7월엔 동구 율하역 부근에 지하 2층, 지상 6층, 영업면적 3만500㎡ 규모의 매머드급 복합쇼핑몰 롯데쇼핑프라자를 오픈한데 이어 이듬해인 지난해 4월에는 동구 봉무동 이시아폴리스에 신개념 쇼핑시설 롯데몰(Lotte Mall)을 개점하는 등 지역 유통시장에서 입김을 강화하고 있다.

향토 업체 위기감 확산

두 업체의 지역 유통시장 진출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역 유통가에선 이와 관련 소문도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 듯 이랜드그룹의 지역 영업망 확장설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랜드 측은 현재 지역의 백화점과 아울렛 이외에도 영업점 2곳을 추가적으로 개설할 여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산지역의 유통업체를 인수하기위해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게 지역 유통가 안팎에서 번지고 있는 소문의 주된 내



용이다. 아울렛 영업점 추가 개점과 함께 기존의 백화점 직매입 비중을 높여 지역 유통시장에서 차별화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런 분위기는 롯데 역시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지역 유통시장 진출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2010년 롯데쇼핑프라자 오픈에 앞서 가진 대구지역 주요 일간지 출입기자와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있었다. 당시 롯데쇼핑 한 관계자는 “대구지역의 대형마트 신규점 출점을 위한 시장 조사 차원에서 부지를 물색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롯데, 이랜드 등 거대자본을 앞세운 역외 유통업체들의 이 같은 파상공세가 이어지면서 향토 유통업체의 설자리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형편이다.

지역 유일의 향토백화점인 대구백화점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 유통시장에서 매각설과 관련된 루머마저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일단 대구백화점의 현금성 자산규모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단순한 악의성 루머에 그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지역 유통업계 일각에선 역외 유통업체와의 경쟁에서 그만큼 고전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일고 있다.

이랜드, 국내·외 M&A시장 선점

이랜드의 외형확장은 대구·경북에서만 그치지 않고 있다. 전국을 뛰어넘어 해외시장에까지 보폭을 넓히고 있다. 특히 이랜드그룹의 인수합병 행보는 최근들어 세간의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총 4건의 M&A를 성사시킨 이랜드그룹은 올 들어서도 사이판의 유명 리조트인 PIC사이판과 팜스리조트를 인수하는 내용의 본계약을 최근 맺은 바 있다.

앞서 지난 2009년엔 베트남 의류회사 탕콩과 아동캐릭터 올리브스튜디오 지분을 인수했으며, 이듬해인 2010년에도 씨앤우방랜드와 해외 패션 브랜드 3곳, 인도의 의류제조사 등 총 6건의 인수를 마무리지었다.

이랜드의 M&A역사는 이보다 한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지난 95년 설악컨싱턴호텔 인수를 시작으로 상당수 주력 사업을 M&A를 통해 확장하고 있다. 현재 호텔 3곳과 콘도 11곳, 테마파크인 이월드(옛 우방랜드) 등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레저사업 역시 M&A에 기반을 두고 시장진출에 나서고 있다. 이랜드의 기업인수는 최근들어 해외 명문 스포츠 구단의 지분 확보에까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올 들어 야구마니아들을 설레게 하는 소식도 전해졌다. 매물로 나온 미국 프로야구(MLB)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구단 인수전에 뛰어들었다는 언론 보도가 바로 그것이다.

이랜드그룹은 지난해 말 컨소시엄을 만들어 다저스 인수 의향을 냈고, 최근 인수 예비 후보군에 오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에 매물로 나온 다저스 구단의 시장 가치는 적게는 12억달러에서, 많게는 15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선협상 대상자 발표는 오는 4월께 예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랜드는 지난해 매출 8조6천900억원, 영업이익 5천500억원의 실적을 낸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파악하고 있다.

한편 롯데그룹은 이미 유통산업에서 독보적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2월 현재 전국에 걸쳐 백화점 영업점만 본점, 영등포점, 대전점, 부산본점 등 총 30곳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이는 국내 백화점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10~20대층을 겨냥한 영프라자의 경우 명동점과 청주점, 대구점 등 영업점 3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롯데몰 이사아폴리스점과 롯데프라자인 청량리프라자도 한 곳씩 거닐고 있다.

여기에도 광주월드컵점 등 롯데아울렛 3곳과 롯데프리미엄아울렛도 김해점, 파주점 등 영업점 2곳을 운영 중에 있다. 해외 시장 진출도 확대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와 중국 북경 등지에 영업점을 두고 있다.

이포상 전문기자

자본시장 감시의 제역할을 기대하면서

얼마전 자본시장에서는 한 재벌기업이 상장폐지 심사대상에 올랐다가 한국거래소(KRX)의 긴급조치로 42시간 만에 백지화 되는 일이 벌어졌다. 투자자들에게 결과적으로 불성실 공시를 한 대기업은 새로운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업무상의 착오'라는 해명과 '경영투명성 개선 방안'을 제출했고, 이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증시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 '상장폐지실질심사제외'라는 처사는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대기업 보주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는 지난해 4월 유가증권시장의 공시규정이 강화되면서 대기업 경영진의 횡령·배임 액수가 자기자본대비 2.5%를 초과할 경우 일정기간 거래가 중단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따져보면 해당기업은 결과적으로 별다른 제재조치를 받지 않은 셈이다. 한국거래소의 '증시 안정'을 위한 조치라는 해명은 시기총액만 3조원에 육박하는 우량기업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만으로도 증시에 미칠 파장이 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납득이 가는 사안이다.

또 망하지 않을 기업이라면 4만여 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의 보호를 위하여 거래정지 기간을 최소화하고 상장폐지 심사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은 당연히 옳은 일이다.

문제는 이번 횡령 혐의 건과 관련하여, 지난해 1월 기소이후부터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표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에 의한 투자자보호를 위한 사전 조화공시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자본시장에는 온갖 불확실한 소문이 난립한다. 한국거래소는 이러한 미확인된 루머들에 대하여 일종의 시장조치인 풍문조화공시를 통하여 특정사실에 대한 확인 요구를 하고 있으며 상장법인은 그 답변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일반투자자에게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지는 취지이다. 따라서 그 사유가 기업의 건전성과 영속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업윤리정신과 도덕성에 가장 위배

된다고 볼 수 있는 횡령사건이었다면 거래소의 업무 불성실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최근 7년간 횡령·배임 사유로 인한
거래소의 조화공시요구상황〉

조화요구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2005년	1	8
2006년	3	8
2007년	3	8
2008년	3	15
2009년	1	25
2010년	2	38
2011년	12	28
총계	25	130

최근들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풍문수집 강화로 인하여 2008년 횡령사유로 인한 조화공시요구가 급격히 증가했고, 2009년 거래소는 횡령·배임등의 혐의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규정을 마련했다.

2009년 26건에서 2010년 40건으로 큰 폭(53.8%)의 상승을 나타낸 이듬해인 2011년 4월에는 이러한 규정을 확정판결단계에서 기소단계로 확대적용하기도 하였다. 위 점에 비추어 거래소가 투자자보호를 위한 시장조치와 규정마련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언론보도가 난무했던 특정기업의 사건에 대하여 조화공시요구 조차 없었다는 사실은 이번 주식거래 정지 파동에 대한 '형평성' 논쟁과 투자자들의 분노를 불식시키기엔 무언가 부족해 보인다. 물론 이보다 앞서 기업총수를 비롯한 경영진들의 바람직한 기업윤리정신 배양과 도덕성 함양을 잊지 않으려는 노력만이 근본적인 불씨를 없앨 수 있음에는 틀림없다.

이포상 전문기자



노란우산공제가 300만 사장님들과 내일을 함께 하겠습니다!



달인 김병만, 류담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기문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가입시 혜택

- ☂ 납입부금에 **연복리이자율**이 적용되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 300만원 추가 **소득공제**로 최고 115만원까지 절세가 됩니다.
- ☂ 납입부금은 **압류가 금지**되어 부도 등 사업 실패 시에도 안전합니다.
- ☂ 상해 사고시 별도로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입 안내

- 가입자격 모든 소기업·소상공인
- 납입부금 월 5만원부터 70만원까지
- 구비서류 청약서, 사업자등록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상담문의 콜센터(1666-9988), 홈페이지(www.8899.or.kr)

2월 기록적 한파 농산물가격 들썩

55년 만에 찾아온 기록적인 한파 영향으로 지난달 밥상 물가가 들썩였다. 강추위 탓에 농산물 가격이 요동친 때문이다. 기습 한파가 몰아치면서 어획량이 줄어든 생선가격도 줄줄이 올랐다. 〈편집자 주〉



농산물 가격강세현상은 지난 1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지속됐다. 한파 탓에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특히 파, 미나리, 고추 등 채소류와 함께 감귤 등 과일류 가격이 요동친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2월17일기준으로 대구지역에서 거래된 풋고추 도매가격(상품 10kg)은 11만원으로, 1년전(4만6천800원)에 비해 135%, 한달 전(7만3천400원)보다도 50% 가량 뛰었다.

붉은고추 도매가격(상품 10kg) 역시 이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는데, 1년전 이맘때보다 55% 오른 8만2천원에 거래됐다.

배추(상품 1kg), 파(상품 1kg), 미나리(상품 20kg)도매가격도 한 달전보다 230원, 600원, 2만1천200원씩 오른 550원, 1천600원, 9만2천원에 각각 거래됐다.

과일류 중에선 감귤가격이 큰 폭으로 치솟았다.

이날 대구지역 감귤 도매가격(상품 10kg)은 3만5천원에 거래돼, 평년의 1만5천20원에 비해 배이상 올랐다. 단감(상품 15kg)과 배(상품 15kg) 도매가격도 평년보다 8천400원, 1만200원씩 뛰었다.

통상 민족 최대 명절인 설대목이 지나면 과일류를 비롯한 주요 농산물 가격은 한풀 꺾이는 게 보편적이다. 제수용 수요가 줄어들면서 소비대비 공급물량이 많아지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지난달에는 이런 방정식이 통하지 않았다.

한파 영향으로 작황부진은 물론 난방비, 운송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출하가격을 끌어올린 것이다.

지난달 기록적인 한파는 수산물가격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 강추위와 높은 풍랑 탓에 조업차질을 빚은 때문이다.

지난달 8일기준으로 겨울철 대표 별미 생선인 대구(大口) 도매가격은 1kg당 8천250원으로 전주의 6천733원에 비해 22.5% 올랐다. 갈치와 바지락도 전주대비 최고 50%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수산물유통공사 관계자는 “채소류 가격이 이처럼 많이 오른 것은 한파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면서 “특히 3월부터는 각 급학교에서 급식수요가 늘어나는 등 채소류 중심의 농산물 가격강세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한파 영향과 관계없이 식량작물의 가격강세현상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 2월17일기준으로 대구지역의 쌀도매가격(상품 20kg)은 4만2천원으로, 1년전보다 6천원 이상 올랐다.

감자(상품 20kg)도매가격도 한달전보다 6천원 오른 3만6천원에 거래됐고, 고구마(상품 10kg)도 평년에 비해 1만1천원 오른 3만3천원까지 치솟았다.

장승욱 전문기자



지역문화재 최고 전문가

문경시 문화예술과 엄원식 학예사

따뜻한 마음으로 지역문화재에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업무를 고집스럽게 진행하는 엄원식 학예사를 칭찬한다.

최근 문경시에는 경사가 있었다. 문경시에 78번째 경상북도 문화재가 지정되었다. 바로 문경시 가은읍에 소재한 구산선문 회양산 봉암사 일주문이 그 주인공이다. (경상북도 문화재 자료 제2012-134호·2012년 2월 6일자)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는 18세기 초에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봉암사 일주문을 특유의 건축적 특징(안정감을 무시한 독특한 구조)과 고졸한 모습 등의 이유로 문화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봉암사 하면 생각나는 분이 바로 엄원식 학예사이다. 2011년 문경시에서 발주한 유곡역복원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엄원식 학예사가 머릿식 힐 겸 읽어라고 주신 “회양산 봉암사(문경시 발행)”라는 책은 문경문화연구총서 7집이라는 부제에도 알 수 있듯이 문경의 문화에 대한 책이다. 그러나 그것의 첫장을 펼치는 순간 이것은 결코 그 흔한 홍보용 책자가 아닌 것이었다.

필자는 엄원식 학예사를 비롯한 대학교 사학과 교수, 조경학과 교수, 한국국학진흥원 수석연구위원, 연구교수, 건축학부 교수, 한문학과 교수, 철학박사인 각철스님, 전시기획실장 등 전문가가 총 망라된 전문서적이었다. 필시 회양산 봉암사 일주문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져 경상북도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것은 엄원식 학예사의 발품과 지역문화재에 대한 탐구의 결과였던 것이다. 최근 공영방송 오락프로그램에 출연한 유홍준 교수가 쓴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의 봉암사 편이었던 것이다. 지금이라도 비매품이 아니라 전문서점에 진

열하더라도 전혀 주눅들지 않을 책이다. (디자인과 편집면에서도 말이다.) 아니 난 맹세코 베스트셀러인 유홍준의 그것보다는 문경시에서 발간한 이 책이 더 품위 있고 전문적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봉암사는 문경에 있고 문경의 문화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의 한사람이 여기에 관여했기 때문이다.

최근 지역마다 스토리텔링사업이 한창이다. 이제는 소프트웨어적인 문화상품이 트렌드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우리고장에는 이렇게 잘 보존된 문화재가 산재해 있다. 우리가 흔히 공무원을 할 일 없이 시민들의 세금만 축 낸다고 생각하는데, 엄원식 학예사의 지역문화재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전문가적인 안목은 세금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는다는 방증인 셈이다. 몇 년전 문경새재의 태조 왕건 세트장을 짓고 세종대왕세트장으로 공사진행을 하고 있던 겨울, 공사감독을 맡고 있던 엄원식 학예사의 입김에서 나왔던 지역문화에 대한 자긍심은 잊혀지지 않는다.

2012년에는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및 관계문서의 국보 승격 등 현안에 대한 소기의 목적도 달성되기를 바란다. 참고로 문경문화연구총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집 문경의 구곡원림(2005년)
- 2집 사진으로 보는 문경의 근대 100년사(2006년)
- 3집 그려여, 안그래여?-문경방언의 맛과 멋(2007년)
- 4집 문경의 민요와 아리랑을 찾아서 (2008년)
- 5집 문경의 의병과 독립운동사 연구(2009년)
- 6집 사불산 대승사(2010년)
- 7집 회양산 봉암사(2011년)





◇ 김만휘 대표

대구·경북 대표 주류도매업체 (주)신화주류

최고 서비스 기반으로 고객업소 1천여곳 확보...월 매출만 15억원 상회

대구·경북지역 주류도매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주)신화주류(대표 김만휘)의 성장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화주류는 고객 감동 및 차별화 서비스를 바탕으로 창사 10여년만에 연 매출 180억원 기업으로 성장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주류도매업체로 도약했다는 평을 얻고 있다. 대구·경북 대표 주류도매업체 (주)신화주류의 경영목표와 창업성공 스토리, 기업경쟁력을 진단한다. (편집자 주)

대구·경북 대표 주류도매업체로 도약

경북 청도군 이서면에 위치한 신화주류는 자타가 인정하는 대구·경북 대표 주류도매업체로 인정받고 있다. 기업 외형만 살펴봐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주)신화주류는 지난해기준으로 월 매출 15억원 규모로 외형이 커졌다.

이는 매출 기준으로 대구권(영천, 경산 등 포함)의 종합주류도매업체 55곳 가운데 상위 1~2위권에 달하는 것이다. 창업초기 월 매출 2억원과 비교하면 불과 10여년새 7.5배 가량 급신장한 셈이다.

창업 초기 5명으로 시작한 직원 수도 2월 현재 30명으로 확대됐다. 신화주류가 이처럼 초고속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는 고객업소에 대한 차별화 서비스에서 찾을 수 있다. 서비스 만족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소규모 주류 구매에도 먼 거리를 마다않고 배달에 나서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총 16대에 달하는 영업용 차량 운전석 왼편에다 인사잘하기, 항상 공손한 대답과 응대 등 주류 영업 및



배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매뉴얼 지침서인 이른바 '영업 10계명'을 붙여 직원들이 몸소 익히고 실천하고 있는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신화주류의 자랑거리는 이뿐만이 아니다. 와인 영업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영입해 판촉활동 및 마케팅도 강화하고 있다. 지역 소믈리에(Sommelier)사이에서 최고의 와인전문가로 통하는 경북대 학사 출신의 김현수(35) 와인총괄부장이 그 주인공이다.

신화주류는 2월 현재 대구와 경산을 중심으로 1천여 업소를 고객사로 영입에 나서고 있다. 단연 지역 최대 규모의 영업망을 확보한 것이다.

자수성가한 CEO의 표본

신화주류의 출발은 지난 2001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수입주류도매업체인 신화엔터프라이즈를 대구 수성구 상동에 설립한 것이 시발점이 됐다. 본격적 성장궤도에 진입한 것은 종합주류도매업체를 인수하면서부터다. 창업 1년만에 경북 청도에 위치한 종합주류도매업체인 화양상사를 인수하면서 본격적인 성장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관련시장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경북 청송 출신인 김만휘(50) 신화주류 대표는 자수성가한 지역의 대표 CEO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981년 중앙상고(現 중앙고교)를 졸업한 그는 지역의 한 세무회계법인에 입사해 열과 성을 다해 일했고, 세무회계법인 대표 역시 그런 그를 높이 평가해 신망이 두터웠다고 한다. 김 대표는 이후 대구미래대학을 졸업한 후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경영 컨설팅을 하면서 얻은 경영노하우를 바탕으로 창업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으며 보란 듯 창업성공신화를 일궈낸 것이다.

김 대표의 생활신조는 '내게 맞는 일은 어디에도 없다. 지금 일에 충실하고 열중하자'다. 욕심은 더 큰 욕심을 낳게 되고 만족을 얻지 못하는데, 이보다는 맡은바 일에 열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성공에 이르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창사이후 최대 위기

패속성장세를 보이던 신화주류도 위기는 있었다. 지난 2008년 9월 발발한 글로벌 금융위기 후폭풍이 몰아치면서 매출이 급감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의 고비를 맞았다. 당시 매출은 전년 대비 30% 가량 큰 폭으로 줄었다고 신화주류 측은 전했다.

지역의 주력업종인 건설경기가 되서러를 맞으면서 접대화화가 실종하자 유흥접객업소들이 큰 타격을 받았고, 연쇄적으로 주류도매업체들이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경영압박에 시달리면서 문을 닫은 업체들도 부지기수였다고 한다.

신화주류는 그러나 위기 속에서 더 큰 힘을 발휘했다. 공격적인 경영을 기반으로 단숨에 대구·경북지역에서 1위 주류도매업체 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 2010년부터는 그간 하향 곡선을 보이던 매출실적도 빠른 속도로 제자리를 잡고 있다고 신화주류 측은 귀띔했다.

직원 복지 향상 앞장

신화주류 김만휘 대표는 직원들에게 늘 소통을 강조하고 가족처럼 살갑게 대하고 있다. 직원들의 땀과 수고,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과 같이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주류도매업체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는 생각에서다. 그래서 김 대표는 직원 기(氣)살리기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내놓고 있다. 지역 중견기업과 견주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이어서 동종업계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지난해엔 1박2일 일정으로 직원과 가족 동반으로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고, 앞서 2010년에는 전 직원이 중국 황산에서 단합대회도 가졌었다.

직원들에 대한 배려는 이에 그치지 않고 있다. 신화주류 주식을 직원들에게 나눠주거나,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회사발전을 위해 함께 동거동락(同居同樂)하며 고생한 직원들에게 신화주류를 물려주겠다는 비전도 제시하고 있다.

1등 주류도매업체 도약 목표

(주)신화주류는 국내 대표 주류도매업체 도약을 목표로 고객 신뢰 경영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고 단순히 매출기준으로 최고가 되겠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 고객업소에서 인정하는 1등 주류도매업체로 키우겠다는 게 궁극적 목표다. 주류도매업체간 치열한 경쟁구도에도 아랑곳없이 상도덕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김만휘 대표는 "고객업소와의 믿음, 신뢰경영을 바탕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전 직원이 힘을 합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직원들의 경영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가족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복지향상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는데도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기대 편집국장



축제의
고장

Uljin

대게·송이축제 전국적 명성



친환경 로하스의 고장인 울진군에는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축제가 유난히 많다. 울진을 대표하는 축제로는 겨울 끝자락에 열리는 '대게축제'와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에 열리는 '금강송 송이축제'를 빠트릴 수 없다. <편집자 주>



울진군 금강송 송이축제



단풍의 계절 가을이 찾아오면 울진군에는 금강송 송이축제가 장관을 이룬다. 울진은 송이의 본고장으로 이름이 높다. 울진에서 생산되는 송이의 특징은 표피가 두껍고, 특유의 향이 진할 뿐만 아니라 신선도가 오랫동안 지속돼 맛이 변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전국에서 수확되는 송이 가운데 으뜸 품질을 자랑한다. 경북 동북부지역에 위치한 울진은 화강암과 마사토 토양이 풍부해 품질이 뛰어난 1등급 송이가 많이 수확되고 있다. 지난 2010년 기준으로 울진군의 연간 송이 생산량은 267t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 2000년 송이 수확량도 73t을 기록, 전국 생산량의 23.1%를 차지했다고 울진군 측은 전했다. 지난해 10월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왕피천 엑스포공원 일원에서 개최된 '제9회 울진 금강송 송이축제'에서는 풍년 기원지신밟기를 시작으로 송이품평회, 송이모형만들기대회, 송이 가요제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진행해 호평을 얻었다. 특별행사로 울진군 씨름왕 선발대회와 울진금강송 전국 마라톤대회도 열려, 군민 단합의 장(場)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울진은 대게의 고향으로도 유명하다. 울진 대게의 유래는 조선시대 인문지리서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문헌에 따르면 대게를 자해(蟹蟹)라고 칭하고, 울진지역 특산물로 기록돼있다. 울진대게는 평해읍 거일리 일원이 원조마을로 알려져 있다. '거일'이라는 뜻도 마을의 지형이 '게알'과 같이 생겼다고 붙여진 것으로, 이 이름은 '기알'에서 '거일'로 변했다고 한다. 울진군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어획되는 대게의 대부분은 평해읍 연안 13해리 부근에 있는 왕돌초 주변에서 잡히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울진대게축제는 봄 초입(初入)계 막을 올린다. 울진군이 주최하고 울진대게집행위원회가 주관하는 올해 대게축제는 오는 2월29일부터 3월4일까지 닷새간의 일정으로 후포항 한마음광장에서 열린다. 길놀이, 대게 요리시연, 월송큰줄당기기 재연, 요트무료 시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민경량 전문기자

생토미, 고포미역, 키토산한우 등 청정 농축수산물 인기

경북 동북부지역에 위치한 울진군은 미역, 문어 등 동해에서 어획되거나 채취된 청정 수산물와 함께 쌀, 취나물 등 친환경 농산물을 중심으로 도시지역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축산물 중에선 대게나 홍게의 껍질에 다량 함유돼 있는 키토산으로 만든 배합사료로 사육된 이른바 '키토산 한우'가 식도락가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높다.



생토미

울진을 대표하는 친환경 쌀 브랜드로 명성을 얻고 있다. 이 쌀은 특히 농약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생산해 몸에 이롭다. 미늘과 계피, 감초 등 각종 약재와 설탕, 막걸리 등으로 만든 목초액을 농약을 대신해 벼 재배에 이용하고 있다고 생산농가 측은 전했다.

쌀겨와 콩, 깻묵 등으로 만든 유기농 비료도 일반 화학 비료를 대신하고 있다. 이 쌀은 울진군의 엄격한 품질관리를 거쳐 생산되고 있으며, 밥맛이 좋은 추청벼로 수확되고 있다. 지난 2007년 전국 친환경농산물 품평회에서 금상을 수상한데 이어 전국 최초로 울진친환경농산물 로하스 인증을 획득한 경북지역 6대 쌀 브랜드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고포미역

고려시대 때부터 왕실 진상품으로 이용된 국내 최고 품질의 자연산 미역으로 통한다. 울진지역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고포마을은 행정구역상으로는 북면 나곡6리로 불려지고 있다. 이 마을 앞바다에서 채취되는 고포미역은 그 맛이 매우 뛰어나다. 고포마을 앞바다는 수심이 얕은데다 물이 맑아 햇빛이 물 속 깊숙이 비치고, 조류가 빨라 양질의 돌미역이 자랄수 있는 천혜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고포미역은 주로 3~6월에 채취되고 있으며, 판매가격은 1단 20을 기준으로 10만~13만을 호가하고 있다. 이 미역은 고포어촌계(054-782-0914), 죽변수협(054-783-8454) 등지에서 판매되고 있다.

키토산 한우

울진을 대표하는 축산물 브랜드로 미식가들 사이에서 맛좋은 한우고기로 정평이 나 있다. 키토산한우는 울진 부근 해역에서 잡힌 대게와 홍게 껍질을 재활용해 특수 제조한 이른바 '키토산' 첨가 배합사료로 사육된 기능성 한우제품으로 출하되고 있다. 일반 한우에 비해 포화지방산 함량은 낮은 반면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높고 올레인산 함량이 높아 씹는 맛이 좋고 부드러우며, 감칠 맛이 뛰어나다고 울진군 측은 전했다. 이 한우는 2월 현재 축산농가 33가구로 구성된 키토산한우영농조합법인에서 3천300마리 규모로 사육되고 있다. 연간 출하 규모는 600~700마리에 그칠 정도로 제한적으로 출하되고 있다. 서울과 울진에서만 맛 볼 수 있는데 서울에는 울진군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전문음식점에서, 울진에는 전문판매점 5곳이 영업 중에 있다.

이포상 전문기자



Travel Sketch

추억이 머무르는 곳



울진 금강송군락지

경북 울진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생태관광고장으로 명성이 자자하다. 국내 최대 금강송군락지를 갖춰서 더욱 그렇다. 보호수로 지정된 수령 500년 이상의 금강소나무가 자생하는 금강송군락지는 빼어난 자태만큼 울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단골로 찾는 대표적 생태관광코스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자료출처 : 울진군



작년 일반주식 변액보험펀드 수익률 큰 폭 둔화

23개 보험사 운용실적 조사 결과

지난해 일반주식 변액보험펀드 수익률이 부진세를 면치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이 생명보험협회가 최근 공시한 변액보험펀드 운용성과를 기초로 23개 보험사들의 운용실적(변액 퇴직연금보험 제외)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국내 일반주식 변액보험 펀드의 가중평균 수익률은 -13.99%로 뒷걸음쳤다. 이는 운용사들의 공모 일반주식펀드 수익률(-11.56%)보다 2.43% 포인트 낮은 것이고, 코스피지수 등락률 -10.98%에 비해서도 하락폭이 컸던 것이다.

변액보험 순자산액 증가률 큰 폭 축소

지난해 변액보험 순자산액 증가률은 전년에 비해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8일 제로인에 따르면 변액보험의 지난해 전체 순자산액은 전년보다 4조원 가량 증가한 63조3천원여으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에 이어 증가세는 지속된 것이지만 증가폭은 지난 2010년의 11조원에 비해 큰 폭으로 둔화된 것이다.

이 기간 수익률 변동성이 큰 국내 주식형 변액보험 순자산액은 800억원 감소했으며, 해외주식형 순자산액과 해외주식혼합형 역시 3천100억원, 570억원씩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국내채권형 순자산액과 국내 채권혼합형, 국내주식혼합형, 해외채권혼합형은 각각 2조4천200억원, 1조3천300억원, 3천억원, 230억원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주식 변액보험 성과 부진

지난해 일반주식 변액보험의 평균 수익률은 -13.99%까지 추락해 지난 2010년 수익률(23.09%)에 비해 실적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간 실적 또한 상이한 흐름을 보였는데, 전년에 호(好) 실적을 거둔 보험사의 상당수가 지난해엔 무더기로 바닥권으로 밀려난 데 반해 하위권에 그쳤던 업체들은 대체로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

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일반주식에서 2위와 5위를 기록하며 상위권을 선점했던 메트라이프생명과 흥국생명은 지난해 -16.81%, -17.37%까지 떨어지면서 전체 16개 보험사 가운데 각각 15위와 16위까지 밀려났다.

이와 달리 지난 2010년 바닥권 수익률을 보인 하나HSBC생명은 지난해 -5.35% 하락률에 머물며 전체 2위를 차지하는 등 대체로 선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생명도 전년 12위에서 지난해엔 3위로 9계단 상승했다.

성과 변동이 이처럼 큰 요인으로는 변액보험의 변동성을 측정하는 표준편차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준편차는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지난해의 경우 편차가 큰 보험사들은 대부분 하위권으로 밀려난 반면 상대적으로 편차가 적은 보험업체들은 선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럽발(發) 재정위기 여파로 증시 약세 현상이 지속되면서 변동성이 심한 시장상황에서 다소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보인 보험사들의 수익률이 나빠졌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전체 일반주식 변액보험의 35% 이상을 차지한 메트라이프생명의 경우 지난 2010년 일반주식 변액보험의 수익률이 26.86%를 기록해 전체 2위의 실적을 보였지만, 지난해에는 -16.81%까지 곤두박질쳤다.

지난해 메트라이프생명의 일반주식 변액보험의 표준편차는 24.50%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유형 평균(22.65%)을 웃돈 것이다. 이와 달리 변액보험의 변동성이 낮은 보험사들은 대체로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동부생명이 -4.41%에 그쳤고, 하나HSBC생명(-5.35%), 대한생명(-6.27%), ACE생명(-7.33%) 등도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들 보험사는 모두 표준편차가 20% 미만에 그친 것으로 제로인 측은 분석하고 있다.

혼합형·채권형 변액보험 선방

일반주식혼합 및 일반채권혼합 변액보험의 경우 삼성생명·대한생명·교보생명·신한생명 등 국내 대형보험업체들의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양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일반주식혼합에서 지난해 -1.98% 수익률로 가장 양호한 성과를 보였고, 신한생명(-2.13%), 삼성생명(-2.37%), 대한생명(-2.64%), 교보생명(-2.83%)도 시장 평균을 웃돌았다.

일반채권혼합 중에서는 카디프생명이 0.83% 수익률로 1위를 차지했고, 대한생명(0.31%), 삼성생명(0.18%), 교보생명(0.09%)도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일반채권 변액보험은 보험사별 수익률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았는데, 교보생명의 수익률이 4.95%로 가장 높았다. 신한생명과 삼성생명, 흥국생명의 수익률도 각각 4.92%, 4.86%, 4.74%, 가량 수익률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글로벌 주식혼합 상품 중에선 푸르덴셜생명(-1.66%)이 가장 양호한 실적을 보였고, 글로벌채권혼합 변액보험 중에선 삼성생명(0.77%)이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

제로인 관계지는 “변액보험 일반주식펀드는 펀드 수와 순자산액

규모에서 관련시장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일반주식 변액보험펀드 수익률이 나뻐던 것은 유럽발 신용경색 등 시장 상황이 악화된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포상 전문기자



지역 유통시장 '착한소비' 열풍

의류, 화장품 브랜드 적극 동참 ... 판매금액 전액 또는 일부 기부



◇ 대구백화점 본점에 입점해 있는 신발 브랜드 '탐스슈즈'에서는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프리카, 남미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신발보내기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등 다양한 기부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최근들어 우리 사회에 이른바 '착한 소비' 열풍이 뜨겁게 일고 있다.

'착한 소비'는 특정 상품을 구입할 때 판매금액 일부를 기부하는 소비 행위를 뜻하는데, 소비자들의 이런 소비 패턴 변화는 유통시장에 적잖은 파장을 던지고 있다. 가격과 품질뿐만 아니라 윤리와 나눔, 환경보호 등을 추구하는 이른바 '개념 소비자들'이 이 처럼 늘어나면서 기업체의 마케팅 방법에도까지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편집자 주〉

착한 상품 브랜드는

우선 화장품업계에 이와 관련된 제품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국내 대표 화장품 브랜드인 '헤라'가 이 경우에 속하는데, 아모레퍼시픽 측은 동종업계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여성 건강과 유방암 예방사업에 나서고 있다.

판매 수익의 일부를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하는 헤라 핑크 리본 리미티드 에디션 제품을 최근 내놓은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헤라'는 유방암 예방의 달인 10월을 앞두고 최근 핑크리본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기획된 '크리미 케익 파운데이션', '크리미 스틱 하이라이터'와 함께 1번 세럼으로 베스트셀러 반열

에 오른 '프리퍼펙션 세럼 (120ml) 대용량 제품을 한정 상품으로 내놓고 있다.

헤라 크리미 케익 파운데이션 SPF 33 PA++은 피부 본연의 촉촉하고 건강한 윤기를 살려주는 크림 타입의 케익 파운데이션으로 미백과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에 효과가 뛰어난 3중 기능성 제품으로 출시되고 있다. 메이크업 브랜드 '맥' 역시 이와 엇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에이즈 인식향상과 예방, 감염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특히 '맥'은 지난 1994년부터 최근까지 무려 16년간 엘튼 존,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레이디가가 등 유명 인사를 홍보대사로 선정하고 비비글랩 립제품의 판매금 전액을 '맥 에이즈 펀드'에 기부하면서 세간의 화제를 모으고 있다. 화장품 브랜드 '탕콤'도 마찬가지다. 배우 정혜영과 함께 안티에이징 에센스 제니피끄 판매 금액 가운데 일부를 유

전적 희귀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후원금으로 지원하는 '제니피끄 미라클 캠페인'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밖에 'SK-II' 또한 지난해부터 아시아지역의 물 부족 국가에 거주하는 현지 여성들에게 분말 정화제를 보내기 위한 취지에서 기획된 '클리어 포 라이프 프로젝트'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패션업계에서도 '착한 상품' 출시 봇물

의류업계도 착한 상품 출시를 늘리고 있다. 진, 언더웨어 브랜드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의류 브랜드 '게스'가 대표적이다. 게스는 지난 2011년 연말 '러브 아프리카' 도네이션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마련된 '에브리 원' 캠페인을 전개해 화제를 모았다. '에브리 원'은 세이브더칠드런의 지구촌 5세 미만 영유아 살리기 캠페인으로 대중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게스코리아는 올해도 지구촌 어려운 이웃을 위해 후원의 손길을 보내기로 방침을 세웠다. 인기 배우 전지현의 애니멀 룩으로 큰 관심을 얻고 있는 데님 야상점퍼를 비롯한 지브라 패턴의 데님 팬츠 등 사파리 아이템 수익금의 일부를 어려운 형편에 처한 아프리카지역의 영유아를 위한 해외 보건 의료사업에 후원하기로 했다. 청바지 브랜드 '리바이스'는 환경보존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친환경 캠페인 '포에버 블루(Forever Blue) 캠페인'을 통해서다. 지난해 7월에 열린 캠페인에서는 브랜드에 상관없이 현 청바지를 매장으로 가져오는 고객을 대상으로 리바이스 청바지 구입 시 최고 10만원까지 할인혜택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렇게 모여진 현 청바지는 재활용을 위해 아름다운 가게에 기증하거나 재판매를 통해 거둔 수익금으로 대학생들의 장학금 지원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캐주얼 브랜드 '행텐' 또한 지난 2011년 여름시즌 때 '지구를 지키고, 사랑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SAVE THE EARTH' 캠페인 티셔츠를 출시하는 등 지구환경보호에 애쓰고 있다.

지역사회 기부운동 활발

지역 사회에선 기부문화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헐릴 위기에 처한 대구 중구 약전골목 내 옛 교남YMCA 회관 건물을 보존·복원하기 위해 기금 모금에 나선 대구백화점이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옛 교남YMCA 회관은 일제 강점기 암울했던 시절 물산장려운동과 신간회운동 등 대구지역의 근대 민족운동의 역사적 거점지역으로써 보존가치를 지니고 있다.

대구YMCA는 앞서 이 건물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매입한 뒤 원상 복원과정을 거쳐 3·1운동기념관 등으로 활용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지난해 10월부터 모금운동에 돌입했다. 이 모금운동은 대구백화점이 기금조성에 동참하면서 시민들의 많은 동참을 이끌어냈다. 대구백화점은 이렇게 모여진 기금을 최근 대구YMCA측에 전달했다. 대구백화점 마케팅총괄실 구승본 이사는 "고객들이 5천원을 기부할 경우 대구백화점에서 추가로 5천원을 지원해 총 1만원을 기부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앞으로도 기부 캠페인에 적극 나서는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경량 전문기자



화폐의 시간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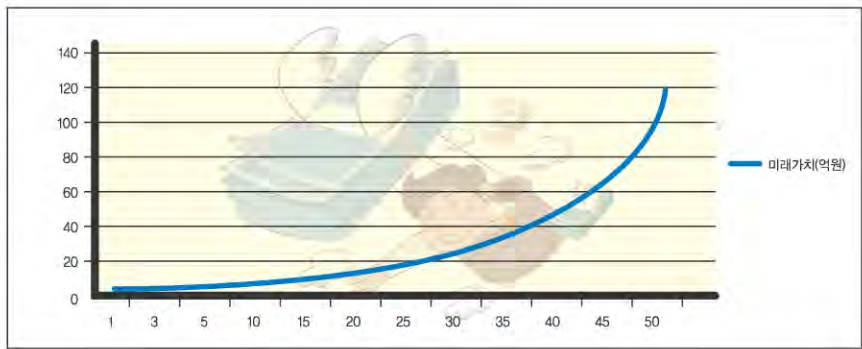
금 용과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소개하려고 한다.

금융과 투자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투자란 현재 확실한 희생을 바탕으로 미래 불확실한 큰 부를 얻고자 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투자의 속성 중 하나는 화폐의 시간가치이다. 화폐의 시간가치란 화폐의 발생시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동일한 금액일지라도 1년 후의 100만원보다는 오늘의 100만원을 더 선호한다. 1년 후의 100만원보다 현재의 100만원에 얼마나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할 지는 사람들의 시간선호에 따라 달라진다.

화폐의 시간가치는 이자율로 알 수 있다. 이자율이 10%이라면, 오늘의 100만원은 1년 후의 가치는 110만원(=100×(1+0.1))이 된다. 따라서 오늘의 100만원과 1년 후의 110만원은 동일한 가치이다. 오늘의 100만원은 5년 후에는 161만원(=100×(1+0.1)⁵), 10년 후에는 259만원(=100×(1+0.1)¹⁰)이 된다. 이와 같이 미래가치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체증적으로 증가한다. 이것이 바로 복리의 마술이다. 예를 들어 현재 1억원을 년 10%의 수익률을 제공해주는 상품에 투자한 경우, 당신은 30년 후에 17억원 40년 후에는 45억원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 복리의 마술은 수익률이 증가할수록 더욱 커지게 된다.

다음 표는 현재 1억원을 투자한 경우 시점별 미래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단 수익률은 10%이다.

기간(년)	미래가치(억원)
1	1.1
3	1.3
5	1.6
10	2.6
15	4.2
20	6.7
25	10.8
30	17.4
35	28.1
40	45.3
45	72.9
50	117.4



제시된 바와 같이 미래가치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체증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많은 투자자들이 미래 더 큰 부를 얻기 위해 투자를 하고 있다. 투자의 성과를 높이는 방법 중 하나는 장기 투자하여 복리의 마술을 활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비록 낮은 수익률일지라도 장기 투자하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높은 수익률을 얻고자 위험이 높은 거래를 하게 되면 손실이 발생할 경우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 예로, -50% 수익률을 달성하게 된 경우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100%의 수익률을 달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투자의 기본 원칙은 장기투자과 위험 감소라 할 수 있다.

미래 발생하는 일정 금액의 현재 시점의 가치를 현재가치라 한다. 1년 후에 받게 되는 110만원의 현재가치는 100만원(= $\frac{110}{(1+0.1)}$)이며, 5년 후에 받게 되는 161만원의 현재가치 또한(= $\frac{161}{(1+0.1)^5}$)이다.

※이자지급방법 = 이자지급 방식에 따라 단리와 복리로 나눌 수 있다. 단리는 원금에 대한 이자만 지급되는 것으로 이자가 재투자되지 않음을 전제한다. 반면, 복리는 원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한 이자도 지급되는 방법이다. 대부분의 금융상품은 복리상품이다.

장승욱 전문기자

경북도, 녹색길 5곳 새로 조성

국비 등 42억원 투입...친환경 보행자 중심길로 단장

경북도가 올해 사람과 자연이 교감하는 친환경 보행자 중심길을 5곳 새로 조성한다. 국비지원사업인 행정안전부의 '우리마을 녹색길 조성사업'을 통해서다.

행안부에 따르면 경북도는 행안부가 최근 실시한 2012년 우리마을 녹색길 공모사업 심사 결과, 총 5개 사업에서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 21억원을 지원받는다. 이는 사업비 규모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이다. 전국적으로는 총 133개 사업이 공모에 응했으며, 이 중 45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행안부 측은 밝혔다.

이번에 조성되는 경북지역의 우리마을 녹색길은 청도 몰래길, 청송 신성계곡 녹색길, 영천 보현산 하늘길, 문경 양상천에 자연그레로(踏), 상주 다락논 녹색길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경북도는 이에 따라 우리마을 녹색길사업에 국비 등 총 사업비 42억원을 투입해 사람과 자연이 소통하는 친환경 보행자 중심길로 단장하기로 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18Km 길이의 청도 몰래길은 인근의 전유성 철기방 코미디극장과 성곡대의 자연경관이 장관을 이룬다. 청송 신성계곡 녹색길은 이번 심사에서 신성계곡과 함께 백석탄 절경 등 빼어난 주변 경관이 후한 점수를 얻었다.

영천 보현산 하늘길은 보현산천문대와 별빛마을이 자랑거리이고, 문경 양상천에 자연그레로(踏) 역시 문경새재 자전거길과 선유구곡, 대야산, 회양산 등 뛰어난 자연 경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와 함께 총 7Km 길이의 상주 다락논 녹색길은 산간 경사지에 조성돼 있는 다락논의 생태자원이 호평을 얻었다. 행안부는 올해 추진되는 녹색길의 경우 자연 경관 보존에 주안점을 두고 조성하는 한편 주민참여를 통해 노선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특히 장애인 등 보행약자층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노선의 경우 천연목재기반의 평지와 흙길로 단장하기로 하는 등 이용자 편의성을 최대한 반영해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1년 시작된 우리마을 녹색길은 아름다운 대자연과 역사·문화, 사람이 어우러진 친환경 보행자 중심길로 조



성돼 선보이고 있다. 우리마을 녹색길사업은 현재 전국에 걸쳐 80곳이 조성돼 있으며, 총 길이만 974Km에 달한다.

경북지역엔 2월 현재 우리마을 녹색길 12곳과 함께 방문객지원시설 9곳이 조성돼 있다.

심보균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국장은 "우리마을 녹색길이 세계적인 관광명소인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과 같이 방문객이 많이 찾는 관광명소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고 밝혔다.

장승욱 전문기자

경북 농식품 수출 연간 2억달러 시대 개막

지난해 총 수출 2억1천만달러 기록
농·수산물 가공산업 수출 큰 폭 증가



지난해 경북지역 농식품(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포함) 수출이 지난 2000년 통계 작성이후 처음으로 연간기준 2억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은 신선 농축산물과 함께 농수산물 기반의 가공식품 수출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지역 농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편집자 주>

지난해 경북지역 농식품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2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농식품 수출은 전년의 1억8천500만달러에 비해 14% 늘어난 2억1천만달러에 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수출통계를 시작한 지난 2000년 이래 처음으로 농식품 수출액 2억달러를 돌파한 것이다.

수출내역을 살펴보면 농산물이 1억2천600만달러(6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산물 7천300만달러(35%), 축·임산물 1천만달러(5)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 별로는 음료가 4천200만달러로 전체의 2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홍게살 3천300만달러(16%), 흡착사료 1천300만달러(6%), 김치 1천100만달러(5%), 사과 600만달러(3%) 등의 순이었다.

경북지역의 농식품 수출은 동북아시아와 함께 북미지역 국가에서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7천600만달러로 전체의 3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미국과 중국쪽 수출도 각각 2천600만달러(12%)와 1천900만달러(9%)를 기록해 2, 3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대만과 베트남으로도 1천400만달러(6%)와 1천만달러(5%)를 각각 수출해 상위 5위권에 진입했다.

전년대비 수출 증가 품목을 보면 성계류(210만3천달러→437만9천달러)가 208% 급증하면서 전체 1위에 올랐고, 이어 음료(1천451만1천달러→4천229만3천달러·182%), 파프리카(709만6천달러→865만1천달러·22%) 순으로 증가폭이 컸다.

경북은 특히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수출이 전체의 56%를 기록하면서 신선 농산물 수출(44%)을 웃돈 것으로 파악됐다.

신선 농산물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은 농수산물 가공산업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지난해 도내 농식품 수출이 처음으로 2억달러 시대를 연 것은 전적으로 농어업인과 수출업체의 각고의 노력 덕분에 가능했다”면서 “농어업인들과 힘을 합쳐 올해 농식품 수출 2억3천달러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경량 전문기자

Korea Economic Planning Institute

www. **KEPI** .or.kr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연구기관입니다.**

기획재정부 허가 학술연구기관

공기업·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국가·지방계약법에 의한 원가계산·검토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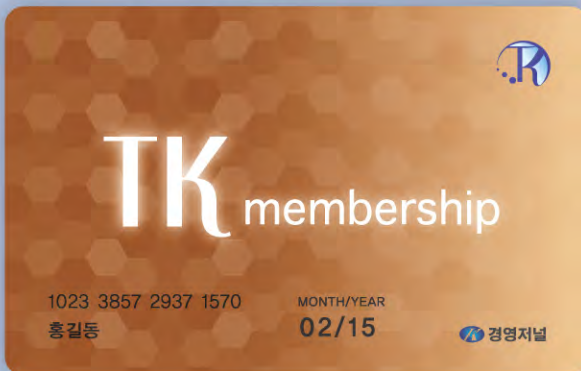
국토해양부 개발비용산정·검토기관



21세기 글로벌 지식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경제기획연구원

TK 경영저널이 membership card 를 발행합니다.



프리미엄 광고·홍보 혜택

- ✓ 경영저널은 TK멤버십카드 제휴가맹업체에 대해 온·오프라인(지면, 홈페이지)을 통한 쌍방향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 경영저널은 제휴가맹업체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맞춤형 광고 게재 등 차별화된 마케팅 활동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 경영저널은 제휴가맹업체와의 상생 발전을 위해 제휴업체를 대상으로 무료로 경영컨설팅을 지원해 드립니다.